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도루하는 나지완·홈런치는 김선빈 … ‘유쾌한 반전’

나, 도루 7개… 팀 내 4위
김, 홈런 5개로 3위 차지
깜짝놀랄 농담같은 기록
KIA 저조한 성적 반영도

2012 paldo 팔도프로야구

‘나지완 도루하는 소리, 김선빈 홈런치는 소리.’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얘기할 때 하던 KIA 팬들의 농담 아닌 농담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 도루하는 나지완, 홈런치는 김선빈이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까지 나지완은 7차례 베이스를 훔치는데 성공했다. 팀 내 4위의 성적이다. 도루왕 이용규가 38개를 기록하고 있고, 김선빈이 28개 그리고 호타준족의 대명사 김원섭이 8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규가 77.8%의 도루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지완은 10차례의 시도에서 7번 성공하며 70%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한 차례 아쉬운 실패도 있었다. 9월 6일 SK와의 홈경기, 나지완의 발이 공보다 먼저 2루에 도착했지만 탄력을 받은 몸이 베이스를 넘어 가면서 뒤늦게 태그 아웃이 되기도 했다.

앞선 4시즌 도루가 총 8개인 나지완의 질주본능을 깨운 것은 그린라이트와 절실함이다.

올 시즌 KIA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선동열 감독은 야수 전원에게 그린라이트를 부여했다. 상황이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껏 뛰라는 주문을 내린 것이다. 나지완도 기회가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고 달리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절실함’이다.

나지완은 “내년 군대를 간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야구를 했다. 조금이라도 더 뛰자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며 “타석에서의 좋은 모습도 필요하지만 베이스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뛰겠다. 더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도 올 시즌 5차례 담장을 넘겼다. 2010년 당시 한화 유니폼을 입고 있던 유원상으로부터 프로데뷔 3년 만에 홈런포를 날렸던 김선빈은 지난 시즌 4차례 홈런 세러모니를 했다. 올 시즌에도 5개의 홈런을 때리며 팀 내 3위의 거포(?)로 자리를 했다.

나지완이 9개로 팀 1위, 최희섭이 7개를 기록하고 있다. 2루타도 18개를 만들어내며 장타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선빈의 장타에는 훈련이 기본이 된 자신감이 있다.

김선빈은 “노리는 볼이 오면 자신있게 내 스윙을 하고 있다. 짧게 친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때리는 경우에도 장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선빈은 캠프에서 기본 체력 훈련에 공을 들였다. 트레이너 코치에게 따로 부탁해서 같이 훈련을 하며 약점으로 꼽힌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김선빈은 또 “수석코치님이 뭔가를 노리기 보다는 직구 타이밍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변화구를 쳐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내 타격과 맞는 것 같다. 히팅포인트도 조금 앞으로 가져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팬들에게는 의외의 유쾌한 기록, 그 뒤에는 두 선수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 호날두야”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왼쪽)가 18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D조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 페페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가 웃었다…레알이 이겼다

UEFA 챔스 32강전, 멘시티에 3-2 역전승

‘스페인 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7)의 역전골에 힘입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에 역전승을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새벽(한국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D조 1차전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호날두의 막판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에 3-2 진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최근 분위기가 침체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반전의 계기를 얻었다.

통산 10회 우승에 도전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2001-2002시즌 이후 들어 올리지 못했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 도전에 청신호를 켰다.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 수(35개)에서 맨시티(10개)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듯했지만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

왼쪽 측면을 책임졌던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호날두의 활약 역시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호날두의 슈팅은 번번이 맨시티의 골키퍼인 조 하트의 정면으로 향하거나 골대를 아예 벗어났고, 패스는 차단되기 일쑤였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먼저 골을 허용했다. 전반까지 공격 분위기를 주도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3분 맨시티의 에딘 제코에게 빠른 역습으로 허를 찔려 선제골을 내줬다.

수비에 치중하다 역습을 노린 맨시티의 작전에 말려든 것.

그러나 후반 31분 마르셀루가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슈팅이 맨시티의 골 그물을 흔들어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경기 종료 5분 전에 맨시티의 알렉산다르 콜라로프가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흐름이 맨시티 쪽으로 기울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종료 3분 전 카림 벤제마의 오른발 터닝슛으로 다시 균형을 맞췄다.

후반 45분에는 부진했던 호날두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수비를 제치고 찬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면서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차지가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달 4일 3시45분(한국시각)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를 상대로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D조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와 함께 D조에 편성된 도르트문트(독일)는 홈에서 아약스를 1-0으로 꺾었다.

B조에 편성된 아스널(잉글랜드)은 원정에서 몽펠리에(프랑스)를 2-1로 눌렀고, 이탈리아 세리에A의 AC밀란은 벨기에의 안더레흐트와 0-0으로 비겼다. /연합뉴스

김보경 잉글랜드 2부리그 데뷔

밀월과 원정 경기서 10분간 그라운드 누벼

구례의 아들 김보경(카디프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카디프시티의 김보경은 19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더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정규리그 6라운드 밀월과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35분 투입돼 경기 종료 때까지 1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7월 카디프시티 이적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출전 기회를 얻었다.

김보경은 카디프시티가 치른 지난 2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출전하지는 못했었다.

출전 시간이 짧아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이날 후반 8분과 후반 10분 연달아 골을 넣어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둔 카디프시티는 4승1무1패로 승점 13점을 쌓고 리그 5위에 올랐다.

한편 잉글랜드 2부리그 볼턴에서 뛰는 이청용은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청용은 영국 버밍엄의 세인트 앤드루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버밍엄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후반 14분 마르틴 페트로브와 교체될 때까지 59분을 뛰었다.

이청용은 15일 월포드와의 경기에서는 교체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출전하지 못했었다.

볼턴은 1-1로 비기고 있던 후반 3분 버밍엄시티의 말론 킹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해 1-2로 졌다.

볼턴은 2승1무3패(승점 7)로 리그 15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덕아웃 말말말

소사 “볶음밥·갈비탕 최고”

▲별 하나 달았네 = 김소식 해설위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벌금 100만원과 엄중경고 제재를 받은 선동열 감독을 보고. 선 감독은 15일 SK전 선수단 철수로 퇴장을 당하며 벌금을 부과받았다.

▲맞춰봐 = 김선빈이 번트 훈련을 하는 안치홍을 향해. 방망이를 세워놓고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번트를 대보라면서.

▲세오(SEO)도 있는데 = 최근 6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한 소사, 승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위로하자 서재응도 있다며. 서재응은 최근 두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지만 9회 승부가 뒤집히면서 연속해서 승리를 날렸다.

▲최고! 볶음밥 좋아요 = 소사, 한국 음식이 맛있다며 정확한 한국말로. 볶음밥과 갈비탕 등이 좋다면서.

▲깰 수 있으면 좋지 = 27이닝 무실점 중인 서재응의 얘기를 하던 선동열 감독, 현역시절 기록한 49와 3분의2이닝 무실점 기록을 후배들이 깨면 좋겠다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문화 생활체육축제

23일 광양에서 열린다

2012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축제가 23일 광양에서 열린다.

광양 서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일반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10개 시군 500여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생활체육교실의 경연 코너 등 장기자랑 시간을 갖는다. 또 단체 줄넘기, 기차놀이, 담요 쟁탈전 등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암벽여제’ 김자인 월드컵 정상 도전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 김자인(24·노스페이스)이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의 여세를 몰아 월드컵 정상에 도전한다.

김자인은 21~22일 벨기에 퓌르스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4차 월드컵 리드(난이도) 부문에 출전한다.

리드는 김자인의 주종목이다.

그는 작년 말까지 리드에서 세계랭킹 1위를 달렸으나 올 시즌에는 주춤하다.

올 시즌 세 차례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해 세계랭킹이 2위로 떨어지고 시즌 랭킹도 5위까지 밀렸다. /연합뉴스